

베트남에서 일하던 시절, 공사판을 지나다 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는 둘이서 함께 들어 날랐다. 나는 그때까지 힘든 일은 당연히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생각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더 오래 남았다. 삽으로 땅을 고르는 작업은 구역을 나눠 맡기는데, 여자들이 세 시면 다 끝내고 퇴근한다고 했다. 남자들은 퇴근 시간을 꽉 채우는데도 말이다. 힘이 세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에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해서였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다. 여자도 그 일을 해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도 밥은 여전히 여자 몫이라는 것.

그동안 내가 힘든 일에서 여자를 미리 빼놓았던 건 아닐까.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선택지를 없앤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나는 물어본 적조차 없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여자 목수가 블로그를 하고, 여자들이 힘든 영역으로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전히 꿈쩍 않는 것이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누구나 0.5초 만에 떠올린다. 그런데 '야쿠르트 아저씨'는 떠오르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거기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색함조차 없는 그 자연스러움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직업에 성별이 붙는 순간, 그 일의 값도 성별을 따라 매겨진다. 관계와 돌봄, 방문 노동이 '아줌마 일'로 저평가되고, 그 자리로 밀려간 사람들의 임금이 거기 묶인다. 일이 쉬워서 싼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이라서 싸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구호 대신 다른 것을 해보기로 했다.

고정관념을 없애자고 외치는 대신, 처음부터 성별이 붙지 않는 직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창업으로 준비 중인 '맛품질관리사'가 그것이다.

식당을 다니며 맛과 위생을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사장님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관계. 흔히 남자 일과 여자 일로 갈라놓던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겸한다.

특히 상담을 개인의 눈치나 성격이 아니라 표준 자격 과정으로 세우려 한다. 여자 일이라는 이유로 싸게 매겨지던 노동을 검증된 기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두 영역이 한 몸에 붙으면 아줌마도 아저씨도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나아가 '서빙 아줌마'로 불리던 사람들이 교육과 자격을 거쳐 이 전문직으로 올라서는 사다리를 놓고 싶다. 이름이 바뀌면 대우가 바뀐다. 나는 그것을 여러 나라에서 보았다.

이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이 아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표준을 설계하고, 자격 과정의 열개를 짜고 있다.

다만 직업 하나가 세상에 자리를 잡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다.

기회가 닿는 자리마다 이 문제를 꺼내 놓고 있다. 직업은 몇 해 뒤에나 만들어지겠지만, 야쿠르트 아저씨가 왜 떠오르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일은 오늘 당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직업 하나를 세우는 일과, 오늘 한 사람의 생각을 건드리는 일. 나는 그 둘을 같이 하고 있다.

가능하냐고 물으면, 미용사를 보라고 답하겠다.

팔십 년대와 구십 년대에 그 일은 천대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전문성을 세웠고, 자격과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지금은 남자가 해도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 원장이 더 흔한 시대가 되었다.

구호가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표준과 호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익숙해진 장면이 마지막을 무너뜨렸다.

베트남 공사판에서 내가 배운 것은 여자도 시멘트를 나른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묻는 쪽을 택하려 한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고 싶으냐를.

야쿠르트 아줌마 다음은, 성별이 붙지 않는 관리자였으면 한다.